

초등학생의 편견과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영태^{1*}

¹원광대학교 교육학과

Influence of Bias and Multicultural Attitude on Multicultural Efficacy in Elementary Students

Young-Tae Kim^{1*}

¹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질 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별, 학년별 모두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편견이 다문화적태도 및 다문화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의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bias and the multicultur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on the multicultural efficacy and to seek for the right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o attain this purpose, this study asked 416 elementary schoolchildren to questions in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bias, multicultural attitude, and efficacy to gender and grade. Second, there is a meaningful correlation among bia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Third,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s bia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ulticultural attitude and efficacy. Fourth,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s multicultural attitude exercises a meaningful effect on the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this survey, a variety of multicultural programs for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 are needed to develop and apply in substance at the level of their eyes. In addition to that, a diversity of studies are needed constantly for making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 get some positive understanding on various cultures.

Key Words : Bias, Multicultural Attitudes, Multicultural 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식정보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통의 문화와 정보에 기반을 두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1],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2],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의 현실속에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다문화 가족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3]. 특히,

*교신저자 : 김영태(kytkyt@wku.ac.kr)

접수일 11년 10월 21일

수정일 11년 11월 03일

게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이는,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은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와 열린 마음이 더 필요하다[2]. 이렇듯, 우리는 자기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용적 자세가 요구된다. 주체적이면서도 다양성을 요구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5].

다문화 교육은 인종뿐 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평등관계를 중시하고,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5].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편견과 차별대우, 무관심, 집단따돌림이나 소외현상, 학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 상처를 받아 자신감 상실 등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3,6-12]

따라서, 초등학생의 올바른 다문화 이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편견영역에 대한 반편견 교육은 필요하며 [13], 타인에 대한 존중과 편견의 시작은 어린이가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그들 주변의 어떠한 방식의 태도로 양육되면서 확립된다[14]. 또한 다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효능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15].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의 현재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다문화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변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성별, 학년별에 따라서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이 지각한 편견,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생 438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438명 중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22부를 제외한 416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Table 1] Sample component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	226	54.3
	여	190	45.7
학년별	5학년	182	43.8
	6학년	234	56.2
전체		416	100

2.2 연구도구

2.2.1 편견

편견이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생각으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없이 공정하지 않게 판단하거나 이를 정당화 시키려는 태도나 신념 또는 감정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상의 편견검사 도구를 개발, 제작한 설문지[13]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수는 총 24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성 5 문항, 장애 4문항, 문화-인종 6문항, 새터민 5문항, 계층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낮음을 나타낸다. [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6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으며, 성 .78, 장애 .75, 문화-인종 .58, 새터민 .78, 계층 .67이었다.

2.2.2 다문화적태도

다문화적태도란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가능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언제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17].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태도검사 도구를 개발, 제작[16]하고,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17]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맞게 초등학교

교사 2인과 교육학박사 2인에게 의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수는 총 12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열린자세 4문항, 사회참여 3문항, 관계존중 5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질문지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열린자세 .62, 사회참여 .67, 관계존중 .75이었다.

2.2.3 다문화효능감

다문화효능감은 개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인 자신감과 신념인 것이다[26].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효능감척도(MES)를 개발[18]하고,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19,15]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맞게 초등학교 교사 2인과 교육학박사 2인에게 의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수는 총 12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일반기능측면 4문항, 수업기능측면 4문항, 인간관계증진측면 3문항, 다문화가정배려측면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63~.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일반기능측면 .69, 수업기능측면 .71, 인간관계증진측면 .78, 다문화가정배려측면 .65이었다.

2.3 자료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변인별(성별, 학년별)에 따른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검증을 하였다.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편견과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배경변인별에 따른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의 차이

3.1.1 성별에 따른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의 차이

[표 2] 성별에 따른 변인별 차이

[Table 2]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sex

구분	성별	N	M	SD	F	p	
편견	성	남	226	3.31	.82	156.655	.000
		여	190	4.21	.59		
		계	416	3.72	.85		
	장애	남	226	2.63	.91	15.406	.000
		여	190	2.97	.81		
		계	416	2.79	.88		
	문화·인종	남	226	3.37	.67	6.816	.009
		여	190	3.59	.62		
		계	416	3.45	.65		
	새터민	남	226	2.81	.86	18.799	.000
		여	190	3.14	.78		
		계	416	2.97	.84		
	계층	남	226	3.47	.78	3.804	.052
		여	190	3.67	.78		
		계	416	3.54	.78		
	전체	남	226	3.11	.56	59.579	.000
		여	190	3.58	.53		
		계	416	3.30	.58		
다문화적태도	열린 자세	남	226	2.99	.64	1.430	.232
		여	190	3.07	.64		
		계	416	3.03	.64		
	사회 참여	남	226	2.82	.79	6.942	.009
		여	190	3.06	.82		
		계	416	2.92	.81		
	관계 존중	남	226	2.95	.79	5.065	.025
		여	190	3.18	.64		
		계	416	3.02	.73		
	전체	남	226	2.93	.66	5.685	.018
		여	190	3.05	.56		
		계	416	3.00	.62		
다문화효능감	일반 기능	남	226	3.28	.78	4.203	.041
		여	190	3.46	.69		
		계	416	3.34	.74		
	수업 기능	남	226	3.13	.81	8.354	.004
		여	190	3.36	.69		
		계	416	3.23	.77		
	인간 관계 증진	남	226	3.33	.97	9.415	.002
		여	190	3.65	.81		
		계	416	3.45	.91		
	다문화 가정 배려	남	226	3.13	.90	12.368	.000
		여	190	3.45	.67		
		계	416	3.26	.81		
전체	남	226	3.21	.73	11.494	.001	
	여	190	3.49	.59			
	계	416	3.32	.67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편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편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59.579, p<.001). 또한 하위요인에서도 계층을 제외한 모든 요인(성, 장애, 문화·인종, 새터민)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편견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p < .001$). 둘째, 다문화적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685, p < .05$). 하위요인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사회참여($F = 6.942, p < .01$), 관계존중($F = 5.065, p < .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효능감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다문화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1.494, p < .01$). 또한, 하위요인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일반기능($p < .05$), 수업기능-인간관계증진($p < .01$), 다문화가정배려($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학년별에 따른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의 차이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이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편견에서는 5학년보다는 6학년이 편견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1.448, p < .01$). 하위요인에서 장애와 새터민($p < .001$), 문화-인종($p < .05$)에서 6학년이 5학년보다 편견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적태도는 6학년이 5학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404, p < .01$). 하위요인에서는 5학년에 비하여 6학년이 사회참여($p < .001$), 열린자세($p < .01$), 관계존중($p < .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효능감에서는 5학년보다 6학년이 다문화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7.971, p < .01$). 하위요인별로는 5학년보다는 6학년이 일반기능($p < .01$), 인간관계증진($p < .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3.2 상관관계 검증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편견의 하위요인별 성, 장애, 문화인종, 새터민, 계층과 다문화적태도의 하위요인 열린자세, 사회참여, 관계존중은 다문화효능감의 하위요인 일반기능, 수업기능, 인간관계증진, 다문화가정배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의 편견과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의 각 영역별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학년별에 따른 변인별 차이

[Table 3]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grade

구분	학년	N	M	SD	F	p	
편견	성	5	182	3.65	.87	2.232	.136
		6	234	3.72	.84		
		계	416	3.72	.85		
	장애	5	182	2.60	.90	15.263	.000
		6	234	2.90	.84		
		계	416	2.79	.88		
	문화-인종	5	182	3.37	.60	4.086	.044
		6	234	3.51	.69		
		계	416	3.45	.65		
	새터민	5	182	2.72	.82	17.955	.000
		6	234	3.12	.83		
		계	416	2.97	.84		
	계층	5	182	3.45	.76	3.423	.065
		6	234	3.60	.79		
		계	416	3.54	.78		
	전체	5	182	3.18	.56	11.448	.001
		6	234	3.39	.59		
		계	416	3.30	.58		
다문화적태도	열린자세	5	182	2.91	.59	9.492	.002
		6	234	3.11	.66		
		계	416	3.03	.64		
	사회참여	5	182	2.79	.74	15.238	.000
		6	234	3.05	.84		
		계	416	2.92	.81		
	관계존중	5	182	2.99	.73	4.377	.037
		6	234	3.09	.72		
		계	416	3.02	.73		
	전체	5	182	2.83	.58	11.404	.001
		6	234	3.09	.63		
		계	416	3.00	.62		
다문화효능감	일반기능	5	182	3.20	.71	12.226	.001
		6	234	3.46	.75		
		계	416	3.38	.74		
	수업기능	5	182	3.17	.78	2.234	.136
		6	234	3.28	.75		
		계	416	3.24	.77		
	인간관계증진	5	182	3.32	.94	6.552	.011
		6	234	3.55	.87		
		계	416	3.41	.91		
	다문화가정배려	5	182	3.17	.80	3.656	.057
		6	234	3.33	.82		
		계	416	3.2	.81		
전체	5	182	3.21	.66	7.971	.005	
	6	234	3.40	.67			
	계	416	3.32	.67			

[표 4] 각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4]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구분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			
	①성	②장애	③문화인종	④새터민	⑤계층	⑥열린 자세	⑦사회 참여	⑧관계 존중	⑨일반 기능	⑩수업 기능	⑪인간관계 증진	⑫다문화 가정배려
②	.425 ^(**)											
③	.588 ^(**)	.411 ^(**)										
④	.379 ^(**)	.525 ^(**)	.354 ^(**)									
⑤	.439 ^(**)	.430 ^(**)	.490 ^(**)	.365 ^(**)								
⑥	.195 ^(**)	.355 ^(**)	.176 ^(**)	.353 ^(**)	.126 ^(**)							
⑦	.234 ^(**)	.265 ^(**)	.155 ^(**)	.335 ^(**)	.194 ^(**)	.620 ^(**)						
⑧	.175 ^(**)	.301 ^(**)	.131 ^(**)	.401 ^(**)	.114 ^(*)	.624 ^(**)	.556 ^(**)					
⑨	.288 ^(**)	.487 ^(**)	.233 ^(**)	.525 ^(**)	.227 ^(**)	.556 ^(**)	.513 ^(**)	.551 ^(**)				
⑩	.230 ^(**)	.338 ^(**)	.242 ^(**)	.402 ^(**)	.213 ^(**)	.606 ^(**)	.506 ^(**)	.543 ^(**)	.656 ^(**)			
⑪	.274 ^(**)	.357 ^(**)	.291 ^(**)	.420 ^(**)	.322 ^(**)	.562 ^(**)	.485 ^(**)	.494 ^(**)	.599 ^(**)	.700 ^(**)		
⑫	.202 ^(**)	.319 ^(**)	.189 ^(**)	.327 ^(**)	.237 ^(**)	.513 ^(**)	.423 ^(**)	.514 ^(**)	.489 ^(**)	.598 ^(**)	.601 ^(**)	

* p<.05 ** p<.01 (N=416)

3.3 편견,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1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의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요인은 표 5와 같다. 다문화적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 요인

[Table 5] Influencing Bias Factors on Multicultural Attitude

변인	변수	B	SE	β	t	p
열린 자세	상수	2.036	.115		17.723	.000
	장애	.171	.038	.234	4.435	.000
	새터민	.175	.040	.229	4.341	.000
	Adj R2=.160 F=40.553 p<.001					
사회 참여	상수	1.659	.183		9.044	.000
	새터민	.276	.048	.287	5.777	.000
	성	.119	.047	.125	2.522	.012
	Adj R2=.121 F=29.650 p<.001					
관계 존중	상수	1.874	.130		14.406	.000
	새터민	.290	.046	.335	6.372	.000
	장애	.104	.044	.125	2.381	.018
	Adj R2=.168 F=42.951 p<.001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574-.681, 분산팽창인자가 1.468-1.74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열린자세에 미치는 변인은 장애(t=4.435, p<.001), 새터민(t=4.341,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열린자세에 대하여 16.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t=5.777, p<.001), 성(t=2.522,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사회참여에 대하여 12.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존중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t=6.372, p<.001), 장애(t=2.381,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관계존중에 대하여 21.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편견이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의 편견이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은 표 6과 같다. 다문화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t=7.904, p<.001), 장애(t=6.173,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기능측면에 대하여 33.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t=5.917, p<.001), 장애(t=3.367,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수업기능측면에 대하여 1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관계증진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t=5.600, p<.001), 계층(t=3.199, p<.01), 장애(t=2.558,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인간관계증진측

면에 대하여 21.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배려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t=4.109, p<.001$), 장애($t=3.770,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다문화가정배려측면에 대하여 13.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요인
[Table 6] Influencing Bias Factors on Multicultural Efficacy

변인	변수	B	SE	β	t	p
일반 기능 측면	상수	1.684	.119		14.166	.000
	새터민	.329	.042	.372	7.904	.000
	장애	.246	.400	.291	6.173	.000
	Adj R2=.334 F=104.977 p<.001					
수업 기능 측면	상수	1.969	.136		14.490	.000
	새터민	.281	.048	.309	5.917	.000
	장애	.153	.046	.176	3.367	.000
	Adj R2=.180 F=46.454 p<.001					
인간 관계 증진 측면	상수	1.483	.201		7.377	.000
	새터민	.313	.056	.291	5.600	.000
	계층	.182	.057	.157	3.199	.001
	장애	.141	.055	.137	2.558	.011
Adj R2=.216 F=39.057 p<.001						
다문화 가정 배려 측면	상수	2.112	.148		14.287	.000
	새터민	.213	.052	.221	4.109	.000
	장애	.187	.050	.203	3.770	.000
	Adj R2=.133 F=32.709 p<.001					

3.3.3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의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요인은 표 7과 같다. 다문화적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503~.569, 분산팽창인자가 1.759~1.99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열린자세($t=4.818, p<.001$), 관계존중($t=4.497, p<.001$), 사회참여($t=3.889,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기능측면에 대하여 39.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열린자세($t=7.038, p<.001$), 관계존중($t=4.581, p<.001$), 사회참여($t=3.006, p<.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수업기능측면에 대하여 42.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관계증진측

면에 미치는 변인은 열린자세($t=6.157, p<.001$), 관계존중($t=3.580, p<.001$), 사회참여($t=3.256,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인간관계증진측면에 대하여 36.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배려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관계존중($t=6.145, p<.001$), 사회참여($t=6.091,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다문화가정배려측면에 대하여 32.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적태도요인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f Multicultural Attitude on Multicultural Efficacy

변인	변수	B	SE	β	t	p
일반 기능 측면	상수	1.442	.145		7.194	.000
	열린자세	.301	.063	.260	4.818	.000
	관계존중	.285	.052	.279	5.497	.000
	사회참여	.181	.047	.197	3.889	.000
Adj R2=.395 F=91.297 p<.001						
수업 기능 측면	상수	.748	.146		5.120	.000
	열린자세	.444	.063	.371	7.038	.000
	관계존중	.240	.052	.228	4.581	.000
	사회참여	.141	.047	.149	3.006	.003
Adj R2=.424 F=101.127 p<.001						
인간 관계 증진 측면	상수	.732	.181		4.035	.000
	열린자세	.482	.078	.341	6.157	.000
	관계존중	.233	.065	.187	3.580	.000
	사회참여	.190	.058	.169	3.256	.001
Adj R2=.361 F=79.276 p<.001						
다문화 가정 배려 측면	상수	.986	.166		5.923	.000
	관계존중	.354	.058	.318	6.145	.000
	열린자세	.399	.065	.315	6.091	.000
	Adj R2=.322 F=99.546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은 변인별로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및 편견,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서는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편견에서의 하위요인(성, 장애, 문화인종, 새터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편견의 정도가 낮음을 보였다. 이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20]와 상반되며,

다문화수용성에서 여학생이 높다는 결과[21]와 편견을 덜 보인다는 연구결과[22]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편견에 미치는 다각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적태도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사회참여, 관계존중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다문화효능감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일반기능, 수업기능·인간관계증진, 다문화가정배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년별에서는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편견의 하위요인에서 장애·새터민, 문화·인종에서 6학년이 5학년보다 편견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수용성에 고학년이 높은 것으로[21], 학년이 올라갈수록 편견적인 태도가 감소한다는 결과[23]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적태도 하위요인에서는 사회참여, 열린자세, 관계존중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다문화효능감 하위요인별로는 일반기능, 인간관계증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편견, 다문화적태도, 다문화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의 편견과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의 각 영역별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편견이 다문화적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열린자세, 사회참여, 관계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열린자세에 미치는 변인은 장애, 새터민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16%를 설명하였고, 사회참여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 성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12.1%를 설명하였고, 관계존중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 장애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2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편견이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기능, 수업기능, 인간관계, 다문화가정배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일반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 장애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33.4%를 설명하였다. 수업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 장애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수업기능측면에 대하여 18%를 설명하였다. 인간관계증진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 계층, 장애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21.6%를 설명하였다. 다문화가정배려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새터민, 장애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13.3%를 설명하였다.

넷째, 초등학생의 다문화적태도가 다문화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기능, 수업기능, 인간관계, 다문화가정배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일반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열린자세, 관계존중, 사회참여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39.5%를 설명하였다. 수업기능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열린자세, 관계존중, 사회참여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42.4%를 설명하였다. 인간관계증진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열린자세, 관계존중, 사회참여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36.1%를 설명하였다. 다문화가정배려측면에 미치는 변인은 관계존중, 사회참여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3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의 편견은 교육적 노력에 의해 편견에 저항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을 기르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환경에서 반편견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9,13], 이는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연구들[13,24]을 지지해 준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편견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일은 매우 절실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문화적태도 역시 평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정에서 양육하느냐가 초등학생의 다문화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5]. 따라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문화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가정에서도 다문화에 대하여 바라보는 고정관념 및 시각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효능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15,26]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교류할 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표집은 전라북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에게 맞는 실제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체제 및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화시대에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구체적인 다문화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수용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eong, H. O., "The Research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 Regarding Multicultu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2] Seol, D. H., Social Recognitions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43(5), pp. 2~3, 2006.
- [3] Hong, D. A. G., & Chae, O. H., & Lee, N. J.,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5), pp. 729~741, 2006.
- [4] Do, M. H., & Kim, S. C., A Study for Perception Increase of Childcare Teacher on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pp. 163~181, 2010.
- [5] Chang, I. S., Multicultural Education in America an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4), pp. 27~53, 2006.
- [6] Chang, I. S., An Educational Task on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n Society, *Journal of Graduate School Dongkuk University*, 28, pp. 203~208, 1998.
- [7] Shin, H. J.,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8] Oh, S. B., A Study of the Instance of opportunities of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 policy for ethnic minorities's children born in intermarriage homes, *Journal of Anthropological Studies*, 12, pp. 1~15, 2007.
- [9] Lee, I. J., Anti-bias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Journal of Ethics Education*, 22, pp. 253~272, 2010.
- [10] Jeong, H. Y.,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xed ethnic children : focused on the marriage of korean man with asian woman".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11] Cho, E. K., Kids 'difference' to adapt to Attend, *Hankyoreh21, Hankyoreh Media Group*, 623, pp. 46~47, 2006.
- [12] Cho, Y. D., Multicultural children's education at home survey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
- [13] Jeong, G. M., "Influence of Anti-Bias Educational Program on Bias and Multicultural Awarene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9.
- [14] Wotorson, M., *Partners against hate program activity guide: helping children resist bias and hate*, Washington, DC: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2001.
- [15] Lim, J. Y., "Perception and Self Efficiency Esteem of the Multiculture Among the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6] Kim, S. M., & Nam, G. H., *A Research on Qualities of the world's civic on youth*, Seoul: National Youth Policy All rights reserved, 2000.
- [17] Lee, J. Y.,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8.
- [18] Guyton, E. M & Wesche, M. V.,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4), pp. 21~29, 2005.
- [19] Choi, C. O., & Mo, K. H., *Investigating Multicultural Efficacy of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4), pp. 163~182, 2007.
- [20] Park, J. H., & Chung, J. J., *A Validation Study for the Inter 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1), pp. 1~21, 2008.
- [21] Kim, M. 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Ph.D Thesis, 2010.
- [22] Row, K. R., & Bang, H. J., *The development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and race attitud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ag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Social Issues*, 15(1), pp. 49~79, 2009.
- [23] Aboud, F. E., *Children and Prejudice*, New York: Blackwell, 1988.
- [24] Ju, D. B., & Lee, D. W., *The Research of Youth Survey on regional conflicts*, Seoul: National Youth Policy All rights reserved, 2000.
- [25] Lee, H. J., "A Study on Factor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9.

- [26] Cho, Y. J.,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Multiculture on Efficiency Esteem of Multicultur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3), pp. 43~58, 2010.
-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관심분야>

교육과정, 교육심리, 다문화교육